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에 3:7-15)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로 인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하만은 모르드개 하나로 모자라 유다 민족 모두를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악의 상징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보고합니다(8절).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자기의 사비를 쓰겠다고 했고, 왕은 이런 하만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반지를 빼주며 당장 허락하여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13절).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는 계획이 반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의 교활한 계획과 유다 백성들의 처절함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으며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미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죽일 날을 정하기 위해 제비 뽑은 날은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7절). 유다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실이 1년 동안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고,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높은 나무를 세워놓은 일이 있었고, 왕은 모르드개의 공로가 적힌 궁궐일기를 읽게 되어 하만의 악한 음모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제비 뽑은 그 날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옮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승리,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Invisible Helping Hand (Esth. 3:7-15)

Haman who was so mad that he could spit nails looked for a way to destroy all Mordecai's people, the Jews, due to Mordecai who didn't pay honor to Haman, because he was not satisfied with the idea of killing only Mordecai. Haman is a symbol of evil. He falsely informed king Xerxes that the Jews did not obey the king's law (v. 8). And, to get permission to destroy all the Jews, Haman told king that he would use his own money to carry out that; however, because he was moved by his sense of loyalty, king Xerxes took his signet ring from his finger, gave it to Haman by giving permission right away, and issued a royal message to annihilate all the Jews (v. 13).

Now, it was impossible to reverse the scheme of killing the Jews. Nevertheless, God, from the first, knew Haman's cunning scheme and the extreme sadness of Jewish people and had a plan of salvation for the Jews. God had already been working for the Jews with His invisible hands.

In order to select the day of killing the Jews, they cast the lot, but the day was a year later (v. 7). At the very least, the Jews had time for one year on their side. In fact, Esther gave a banquet for one year, inviting king Xerxes and Haman. While Haman had a gallows built to have Mordecai hanged on it, king read the meritorious record of Mordecai in the book of chronicles in the palace, and noticed Haman's evil conspiracy. This incident never happened by ch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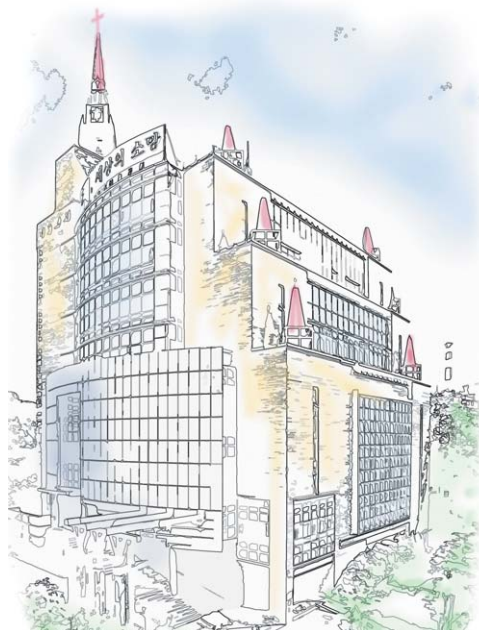
God, till the day when the lot was cast, really carried out a plan of salvation toward the Jewish people due to His schedule.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never alone. God watches, hears, and knows everything. We cannot see Him but He works even now. He works for our salvation and victory, and recovery and revival.

The Apostle Paul said, "Why cannot God who didn't hold His Son dear and gave us everything with His Son?"

There was really God's helping hand to save them in the evil plan of Haman. Even though there are also many things to be difficult and tired, and to weep in our lives, we must look into God with the faithful eyes who is always working for our salvation, recovery, and revival. By holding the promise of which God will give us everything with His So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win the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주제 : 교회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제43학기 목회자세미나는 '교회 성장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주제로 3월 4일(월)부터 5월 6일(월)까지 10주간 열린다. 1교시는 허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사도행전(2) 강해를, 2교시는 '교회 성장을 위한 양육프로그램' 주제에 맞게 각 시간마다 강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바란다.

주	월/일	강사	교회
1	3월 4일	류영모 목사	한소망교회
2	3월 11일	이장석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성장연구소
3	3월 18일	최상태 목사	화평교회
4	3월 25일	반태효 목사	은누리교회
5	4월 1일	김재용 목사	세린교회
6	4월 8일	정성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7	4월 15일	김대동 목사	구미교회
8	4월 22일	윤정중 목사	광주새순교회
9	4월 29일	정정수 목사	무학교회
10	5월 6일	박춘광 목사	지구촌교회

2013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3월 4일(월)~5월 12일(주) 10주간

서울교회 성도들과 이웃주민들을 위한 2013년 전반기 열린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교회 열린프로그램은 성도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웃주민들도 여가선용을 하며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2차례 개강

하고 있다. 이번 전반기 열린프로그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25학기 서울성경대학 레위기반(지도: 황광 목사)을 시작으로 5월 12일(월)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과목 이상씩 수강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성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각 과정별 강의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수강료: 과목당 10,000 원)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시편반	월 오전 10:00-11:00	한상은 목사	602호
사무엘상 1반	금 오전 6:00-7:00	오세광 목사	602호
구약의 파노라마반	토 오후 8:00-9: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1:00	한상은 목사	802호
살렘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전도학교	주일 오후 2:00-오후 3:50	배경애 전도사	903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간)	주일 오후 12:40-1:40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급반(12주간)	주일 오후 12:50-1:50	임규현 목사	606호
중급반(12주간)	주일 오후 4:00-4:50	임규현 목사	606호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중에 진행중

신혼가정부 : 16일(토) 서울교회

2013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금주는 신혼가정부가 16일(토) 교회에서 열린다. 이제 남은 교육 1과, 사랑부, 신혼가정부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24(주일)~26(화)	서울교회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의 친구가 될래요	구분혜 전도사
유치부			작은 이들의 친구	박다형 전도사
유년부			나는 좋은 친구입니다!	김안성 목사
초등부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될래요	최민혁 전도사
사랑부	2.24(주일)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한상은 목사
신혼가정부	2.16(토)	서울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한상은 목사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77]

(문 76) 왜 하나님은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을 허락하셨습니까?

(답) 입다의 서원은 크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사사기 11:30-31에서 암몬 사람들의 침략으로 결정적 갈등을 하던 날 밤에 입다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라는 엄숙한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서원 속에는 어떤 사람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아니면 입다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사람이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알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짐승을 잡아 번제물로 바친다 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자신을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의 피를 흘려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사람을 잡아 피 흘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레 18:21, 20:2-5, 신 12:31, 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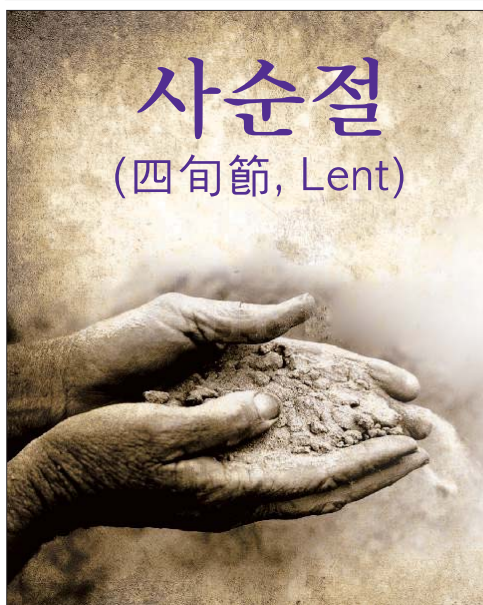
따라서 입다는 물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런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추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신 13:31-32, 18:10-12)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과 싫어하신 것을 입다가 행하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폐기시킨 결과를 낳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법을 경멸하고 언약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실성에 어떤 타협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다가 자기 딸을 약속대로 제단에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평생 제단 앞에서 수종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1:37-38에 의하면 그 딸이 아버지에게 두 달의 기간을 허락 받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친구들과 애곡하고 돌아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약속을 그대로 정직하게 지켰습니다. 산 제물로 자기 딸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식을 살해함으로써 바쳤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히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사순절 (四旬節, Lent)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금년은 2월 13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날을 가리켜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참회(懺悔) 수요일' 이라고 한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한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때보다 더욱 너그럽게 구제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 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이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킨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각종 축하 행사를 하지 않는다. 금년도 부활절은 3월 31일이다.

사순절을 기다리며



신동기 권사(12교구)

악으로 달궈진 못
파멸의 긴 혀 빠고
저주로 깎아 쥘 쇠뿔치
쇠 울음 울며 땀군다.

하늘 심장
팔 벌려 모질게 매달린 당신
대 못 박아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로지를 때
영혼의 우레 소리
땅이 접어지고...

찢어진 몸
그 못 구멍으로
응어리진 하늘이 휘어져
용암처럼 흘러내리고
밤보다 더 캄캄한 철쭉 같은 세상
그 피에 젖어
통곡하며 비틀 거린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은삼십 전의 호사
차디찬 입맞춤으로
구멍 뚫린 손
또다시 못 박는 너

거칠고 황량해
사뭇 길들여지지 않는 흙 문은 영혼
버리고 고르고 추려서
정한 피로 씻고 기름 부어
당신 품에서 간곡히 피어나는
생명의 꽃 눈부시다

오늘도
그 피로 꽃 피우는
끝 없는 사랑!

선교보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케냐 아마니 음악학교



주자 아마니 음악학교

분들과 주변에 모든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후원으로 발전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학비와 학용품, 교복과 신발 급식지원 등 더 나은 삶이 제공되어 지길 기대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마니 음악학교 출신 중 뛰어난 기량을 지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집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음악전문기관을 설립 하려고 합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인 교회 찬양 사역자와 음악교사가 피교육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음악선교의 기본취지는 올바른 찬양의 보급과 지도자를 양성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 1단계인 유청소년 교육에 이어 2단계인 지도자 양성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르러 구체적인 기도를 바라보기에 교회와 음악 전문 센터 설립을 염두에 둔 운영계획 및 후보지 장소물색을 하였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컴퓨터 지원교육: 100대의 컴퓨터를 어떤 선교회로부터 기증을 약속 받은 것입니다. 금년 봄에 개통된 Thika 하이웨이를 통하여 나이로비 타운에서 1시간 정도 북동쪽에 위치한 빈민 집단 거주지역 마을 안에 케냐 초등학교 교육 사상 처음으로 티리리카 초등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이 시작될 예정으로 학교의 관계자들이 흥분하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의 환경이 음악으로만 직업을 삼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이런 컴퓨터교육과 제빵교육을 통해 직업을 갖고 자립하여 교회음악 종사자나 음악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케냐에서 김낙형 · 오정녀선교사 올림



웬디나 아마니 음악학교

아마니 뮤직스쿨은 현지인들의 성실한 지도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지켜보며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로 함께 해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해 8월 29일 케냐 정부에 신청하였던 종교 법인이 통과되었습니다. 단체 이름은 EL GLOBAL VISION에 SOCIETY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단체 등록으로 교회설립, 교육기관설립, 연주활동 및 전도활동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엘 글로벌 비전(하나님의 아프리카를 향하신 꿈)이 동부 아프리카 찬양교육의 롤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니 뮤직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현재 130여명의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우수한 달란트를 가진 유소년들 32명 전원에게는 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며 피아노와 이론, 성악, 악기등 적성에 맞는 재능지도를 하루씩 추가로 개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들 중에 아프리카의 찬양을 이끌어갈 뛰어난 사역자와 교사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헌신된 단기 음악선교사가 많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반주자와 부지휘자가 급히 필요합니다)

2009년부터 극빈층 학생들에게 학비와 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아마니 음악학교 전교생(130명)에게 모두 지원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지금, 1:1결연프로그램(1교좌:3만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이 살아나기야 할 목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

고등부 주일자제예배를 시작하며

영적 에너지 넘치는 고등부

이지영(고등부 회장)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등부 자체 예배' 라는 새로운 역사가 1월 13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로서 4회를 맞이하는 고등부 자체 예배! 아직은 어린 아이 걸음마처럼 미숙한 점도 많고 걱정 어린 시선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자체예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등부의 출석률이 크게 증가하여 에너지 넘치는 고등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고등부 부흥의 불씨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짧게 고등부를 왔다가며 고등부에 속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 했던 친구들도 이번에 고등부 자체예배로 바뀌면서 소속감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부는 헌금위원, 주보안내등을 모두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찬양대도 입례송과 같은 예배의 전반적인 찬양들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는 저와 부회장이 한 달 씩 번갈아가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매주 각 반 대표 한 명이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당연히 여기던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책임감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고등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은혜 받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에 맞춘 이종진 목사님의 눈높이 설교로 예배 시간에 집중도도 높아지고 딱딱한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별 공과공부 또한 설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 배워 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고등부 자체예배가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체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등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농어촌100교회운동 후원자

고경원(박윤옥), 전시경 이은미, 우승희, 황선옥
누계: 147명 12,200,000원 (다음 주 계속)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황난옥 이진명(최영희3) 이미경 박미경5(노영석) 구본혜 사라 전도희 전시경 이은미 강홍래 황선옥1 이영란 우승희 김태옥 이재경 김성은(성경,요한) 박홍래(우미란) 조혜영
누계: 201명 14,780,000원 (다음 주 계속)

비전2020 운동 후원자

고인진 전시경 예치수 장영순 나미경 우승희 박홍래 우미란 안경옥 홍일성 황선옥 이은미 유현주 김순진 유병옥 양동택 사라 전도희
누계: 개인 302명 기관 11개 4,665,000원 (다음 주 계속)

성도 여러분, 후원 감사드립니다.
후원 봉투는 2층 새가족부실 앞에
미련되어 있습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월 15일(금) 한국기독교학술원 정기이사회에 참여한다.
- 특녀: 5교구 마승우 성도, 최수정 집사(2013-1-30)
- 부임: 12교구 노중환 성도 농협중앙회 서산한우개량사업소 소장

- 주간식당봉사: 바울선교회(2.10) 엘리야선교회(2.17)
- 금주의 식사: 이희구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유년부 주일자제예배를 시작하며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예배

정예혼 (3학년)

유년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김안성목사님의 설교말씀도 길어지고 본당에서 뽀뽀이 흠뻑이 흠뻑이 드렸던 예배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 주일 아침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김안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말씀은 재미있고 귀에 쫄쫄 들어옵니다. 함께 보여주시는 그림과 동영상은 나도 그렇지만 올해 유년부에 처음 올라온 동생 우형이와 유나가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고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두 주에 한번씩 그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설교말씀으로 퀴즈도 풀고 게임을 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유년부 주보에 올

라오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 모두 얼마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퀴즈를 맞추기 위해 열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년부 친구들이 헌금위원도 해야하고 찬양대는 한달에 한번 불렀던 헌금송만이 아니라 예배 순서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찬송들이 많아져 힘든 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유년부 예배가 더 즐겁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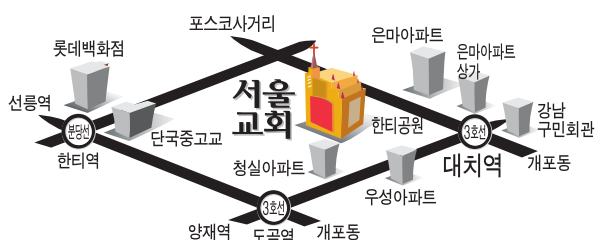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땅 가운데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원근각처에서 모임을 가질 때 서울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복음의 향기가 풍성하도록
2. 졸업과 함께 한 학년씩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소서
3. 교회 입당, 신학교 졸업식, 우물파기 사역, 등을 위해 미안마로 떠나시는 담임목사님과 선교팀의 안전과 은혜 충만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부 서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유년부	주일 오전 9시	701호	
	II 부	초등부	주일 오전 9시	601호	
	III 부	중등부	주일 오전 9시	501호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고등부	주일 오전 9시	101호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젊은이 예 배	청년1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청년2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청년3부	주일 오후 1시 30분	101호
금 요 기도회	오전 8시				
세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외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